

01 교회소식

은혜의 자취

하나님의 살아 계신 무수한 증거를 체험케 했던 만민하게수련회 및 교회 개척 38주년 기념주일 관련 소식.

02 생명의 말씀

‘가나안 정복사’ 시리즈

세상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군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 주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

03 기획특집

“인도에서도 함께해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지옥’ 책자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유튜브로 환자기도를 받고 감상선 기능저하증을 치료받은 인도 성도들의 간증.

04 간증

‘만민’을 만난 축복

어깨에 석회화 건염을 치료받은 장옥례 집사와 고막이 터져 듣지 못하던 귀가 들리게 된 몽골 하산사나 집사의 간증.

# 만민뉴스

제925호 2020년 8월 2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만민하게수련회 그 사랑과 권능 되새기며

해마다 여름이 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체험하는 은혜의 축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만민하게수련회다.

특히 2013년부터는 GCN방송으로 생중계 되는 가운데, 선교회별이 아닌 전 성도를 비롯해 해외에서도 참석하는 국제적 연례행사로 자리매김하며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로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밑거름이 되어왔다.

매년 8월 초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지곤 했지만 비, 바람, 구름 등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최

상의 날씨 속에 하나님의 살아 계신 무수한 증거를 체험할 수 있었다. 또한 잠자리 떼가 모기, 나방 등 해충을 박멸해 줄 뿐 아니라 성도들의 몸에 살포시 내려앉아 행복한 추억을 선사하곤 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먹장구름이 흩어지고 비가 그치며 말갈계 열린 하늘 사이로 별들이 나타났으며, 태풍이 소멸되거나 진로가 바뀌기도 하였다.

만민하게수련회 하면 단 위를 가득 메운 간증 행렬이 떠오른다. 첫날 교육 후 은사집회 때마다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불치·난치병 등 각종 질병이 치유되며, 휠체어와 목발을 버리고 걷는가 하면 시력 회복 등 폭발적인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특히 해외에서 참석한 농아 성도들의 귀가 열리니 매

년 많은 해외 농아 성도가 수련회장을 찾아 귀가 열리거나 이전보다 더 잘 들린다는 간증이 계속됐다.

또한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가 인도한 2018년과 2019년 수련회 은사집회 시에도,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 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통해 폭발적인 권능의 역사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 밖에 해외 곳곳에서 생방송이나 녹화방송을 통해 참석한 성도들이 시공을 초월해 치료받고 응답받아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다.

만민하게수련회는 죄악으로 관영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다.

## 개척 38주년 기념예배 및 현장예배 재개

우리 교회 개척 38주년을 맞아 지난 7월 26일은 개척 기념주일로 드렸다. 이날을 기점으로 5개월 만에 현장예배가 재개되어 주일 대예배에 2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정부의 방역 수칙을 지키며 일부 주의 종과 교구 및 선교회 임원 등 220여 명이 참석했다.

주일 대예배 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보배 중의 보배는 믿음’(히 11:1)이라는 영상 설교를 통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영적인 믿음은 첫째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믿음이고 둘째로 순종할 수 없는 것에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전했다.

‘개척 38주년 기념예배’로 드린 저녁예배 시에는 교역자회 회장 주현철 목사(사진)가 ‘일을 행하고 성취하는 여호와’(렘 33:2)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주목사는 지난 38년간 만민을 친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 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참마음이 되어야 함으로 먼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변함없이 성결에 힘쓸 것”을 전했다.

한편, 현장예배는 주일 대예배만 시행되고 코로나 사태의 추이를 살피며 성도들과 지역 사회 안전을 보장하는 선에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 제 칠 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일곱 번 도니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다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여호수아 6:12~16)

당회장 이재록 목사

범람하던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의 다음 목표물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길목이라 할 수 있는 여리고는 큰 성인만큼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할 듯했는데, 사람들이 눈에 띄기는커녕 이상하리만치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여리고 성내는 이제 곧 벌여질 이스라엘과의 피할 수 없는 전쟁으로 온통 촉각을 곤두세운 채 두려움 속에 숨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했을까요?

## 1. 오직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여리고성은 내성과 외성으로 되어 있고, 성벽 위로 마차가 지나다닐 정도로 견고한 데다가 무장한 군사들이 방어하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힘만으로는 도무지 공략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것을 말씀하시면서(수 6:2) 다소 이해하기 힘든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옛새 동안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제 칠 일에는 일곱 바퀴를 돌라는 것입니다.

이때 맨 앞에는 무장한 자들이 선 뒤 일곱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잡고, 그 뒤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따르며 그 뒤로 백성들이 행군하는 것입니다. 제 칠 일에는 여리고 성을 일곱 번 돌고 난 후,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어서 그 소리가 들릴 때에 온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치면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는 것이었지요.

여기서 거듭 강조되는 ‘7’은 완전수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일곱째 날에 제사장들이 길게 나팔을 불어서 그 소리가 들릴 때에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고 알려 주셨는데, 이는 바로 영적으로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렘 33:3).

견고한 여리고성이 백성들의 외침으로 무너진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는 전술이지만, 믿음의 훈련을 받은 출애굽 2세대들은 어떠한 부정적인 고백이나 불평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여 행했습니다.

요단강을 등지고 배수진을 친 채 양각 나팔을 들고 너무도 당당하게 성 주변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여리고성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어 감히 공격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시니 그들의 알 수 없는 행동에 망연해하며 초조하게 지켜보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이 되니 여느 때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성을 돌기 시작하는데 무려 일곱 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나팔소리가 길게 울리는가 싶더니 여호수아가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수 6:16) 하자 백성들이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는 것이었지요. 그 순간 놀랍게도 튼튼한 이중 성벽이 일시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난공불락의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도무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지만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문제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지요. 결국 고통 가운데 낙심하거나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반면에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여 담대히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듯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세상 방법이나 지식을 동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고 믿음으로 행군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 주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시 20:7).

## 2. 여리고성과 그 성의 모든 것을 바치게 하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은 성에서 얻은 노획물을 한 가지도 사사로이 취하지 않고 불사르거나 성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얻은 것이니 먼저 하나님

께 돌렸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수입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또한 여리고의 사람과 짐승은 다 죽었는데, 살아남은 사람은 단지 두 정탐꾼을 도와준 라합과 그녀의 가족뿐이었습니다. 혹자는 모든 것을 진멸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기도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행한 것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사람과 짐승을 죽이는 것은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거민들은 극심한 죄악 가운데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으며, 특히 많은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고 있었지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과 함께 거한다면 차츰 죄악에 물들게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사람들을 진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신 7:16). 이는 죄악으로 관영한 가나안 거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이기도 했지요.

사람들의 죄악이 어느 한계에 달하면 하나님께서 공의 가운데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를 그냥 방치해 두면 마치 전염병과 같이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해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죄악이 관영하기를 기다렸다가 진멸하신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시지요(시 103:8).

하지만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진멸당하고 만 것입니다.

## 3.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을 살린 여호수아

라합은 이스라엘을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습니다. 이 일로 정탐꾼들은 여리고를 점령할 때 라합과 그의 가족은 살려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여기에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창문으로 탈출시킬 때에 사용했던 붉은 줄을 창문에 매어 두고 라합과 그의 가족이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혼란스러운 전쟁 중에 지킴 받기 위한 조건이었습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정성구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마을버스**
- 금천 07번(교회앞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가독서 시 **우송료**만은 정가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이 조건을 보면 출애굽 당시 장자의 재앙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하룻밤 사이에 애굽의 초태생, 곧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때도 단서가 있었는데 바로 집 문의 좌우 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하며, 집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지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재앙에서 지킴 받는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죄악이 관영하여 날이 갈수록 각종 재앙들이 범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들은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십니다. 단, 그 보혈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어야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고 문 밖으로 나가지 않으며, 라합의 가족이 창문에 붉은 줄로 표시한 뒤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

에 거하며 죄악 된 세상과 짝하지 않아야 지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한 대로 계명을 지킬 때 주님께서 함께하심으로 항상 지킴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믿는 다 하면서도 각종 재앙과 시험 환난으로 고통 받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출 15:26).

비록 기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라합과 같이 마음이 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심판 가운데서도 구별하여 지키시는 것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라합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의 부모와 형제는 물론 친족에 이르기 까지 모두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지요.

또한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관영한 여리고성을 심판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선한 사람은 구원에 이르도록 어찌하든지 인도해 주십니다.

여리고성의 정복과 관련해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가 다시는 여리고가 건축되지 못할 것을 맹세한 대로(수 6:26), 약 500년 후 아합 왕 시대에 그대로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왕상 16:34).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고 기억이 희미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또한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전쟁뿐 아니라 모든 일의 결과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늘 승리의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유튜브로 예배에 함께한 뒤, 축복이 넘칩니다!”

파룰 성도 (38세, 인도 인도르만민교회)



천국과 지옥에 대해 궁금해하던 저는 2018년, 이웃으로부터 이재록 목사님의 저서 『지옥』을 받아 읽고, 지옥의 끔찍한 고통에 대해 알고 울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밤잠도 이룰 수 없었지요.

그 뒤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에서 찾아 들으며 15년간 교회에 다녔어도 듣지 못했던 많은 의문에 해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통해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지’에 대해 듣고 하나님의 인간 경작의 섭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분량’ 설교를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영적인 눈이 열렸지요. 이재록 목사님께서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설교들을 일가친척, 친지들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은혜를 많이 받고 삶의 여러 문제에 대한 응답을 받았지요.

유튜브 ‘GCNTV HINDI’ 채널에서 이 목사님의 설교들을 지속적으로 듣던 저희는 마침내 2019년 7월에 인도르만민교회를 시작하여 만민중앙교회 생방송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만민중앙교회에서 보내 주신 스마트 TV를 통해 30여 명의 성도가 모여 매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각 가정에서 생방송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어떤 성도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십일조 생활을 하니 축복이 임해 많은 빛을 청산하였고, 절망에 빠져 살던 어떤 성도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뻐하며 말씀대로 행하고자 힘쓰니

무슬림이던 남편이 주님을 영접하고 핍박이 사라지는 등 간증이 넘칩니다.

저 또한 당회장님의 메시지를 통해 참 신앙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 한다 했지만 제 삶에 죄와 악이 가득했음을 깨달아 저의 말과 행동도 바뀌었지요.

이전에는 가족과 논쟁을 하곤 했는데, 당회장님을 통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텔리만민 바이블아카데미를 통해 지역리더로서 성장하고 있으며, 주의 종을 사모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게 되었고, 저도 당회장님의 순종의 삶을 본받기 위해 노력하며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어가니 일터에서도 축복받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축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갑상선 기능저하증을 치료받아 은혜가 충만합니다!”

푸쉬파 크호레 성도 (41세, 인도 하르다 매드하프래데쉬)

2016년 어느 날부터 목 주변이 붓고, 집안일을 하는 동안에도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그해 5월,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제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계속해서 약을 먹었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었지요. 너무 피곤해서 집안일을 하는 것조차 어려웠고, 요리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17년 1월에 저는 유튜브에서 ‘GCNTV HINDI’ 채널,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기도를 받았을 때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후 매일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기 시작한 뒤로 몸

이 점점 좋아졌고, 집안일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힘이 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달인 2월, 검진을 다시 받으러 병원에 간 저는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상선 수치가 정상으로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찍이 의사는 제게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평생 갑상선 약을 먹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받아 약을 먹지 않고도 건강하며,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오른쪽 어깨의 석회화 건염이 깨끗이 사라졌어요!”

장옥례 집사 (51세, 3가나안선교회)

지난 2월 20일(목), 출근하던 중 갑자기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좀 있으면 낮겠지 생각했는데 주말이 지나도 통증이 여전했습니다.

오른손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세수도, 머리를 감는 일도 왼손으로 해야 했고 오른쪽 어깨에 가방을 멜 때 시리거나 전기가 오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왼쪽 어깨에만 메고 다녀야 했지요. 오른팔을 들어 올릴 수 없어서 직장에서 컴퓨터 키보드를 사용할 때는 불편함이 컸습니다.

심지어 25일(화)에는 재킷을 제대로 입지 못할 만큼 통증이 심했고, 손이 떨리고 오한이 들어 심각한 상황임을 느꼈지요.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았는데, 의사는 제 오른쪽 어깨에 3mm 크기의 석회화 껍질이 있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저 같은 경우는 석회화 뼈 근처에 있기 때문에 통증이 굉장히 심할 것이라고 했지요.

25년 전, 저는 갑상선 기능항진증이 왔을 때 약 한 번 먹지 않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ARS(자동응답서비스) 환자기



도를 받고 치료되었습니다. 목에 볼록 나와 있던 부분도 들어가고 튀어나왔던 눈도 정상이 되어 지금까지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지요.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료받을 때 후유증도

남지 않고 가장 완벽하다는 사실이 제게 확실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체험이 있었기에 저는 이번에



도 하나님께 치료받고자 했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그날, 곧바로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님에게 기도를 받았습니다.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원장님이 기도해

주실 때 따뜻한 성령의 운행하심을 느낄 수 있었고, 그때부터 오른쪽 어깨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통증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 주 뒤인 3월 3일(화) 다시 진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과연 결과는 “석회 흔적만 있고 깨끗하다”라는 것이었지요. 할렐루야!

물론 지금까지도 통증이 전혀 없으며 자유자재로 양손을 사용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제가 좋아하는 운동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그토록 통증이 심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순간에 사라졌을까?’ 지금 생각해도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은 정말 대단하시구나!’ 감탄하게 됩니다.

제 신앙이 더욱 충만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늘 좋은 것만 주시는 주님께도 감사드립니다.

## “고막이 터져 듣지 못하던 귀가 이젠 잘 들립니다!”

하산사나 집사 (53세, 몽골만민교회)



제가 중학생 때 일입니다. 오른쪽 귀가 간지러워 날카로운 것으로 후냈는데 그 순간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이후 누가 뒤에서 불러도 저는 잘 듣지를 못했고 큰 소리로 여러 번 불러야 그나마 들을 수 있었지요. 상대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 오해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고 대화하는 데 큰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제 오른쪽 귀는 고막이 터진 상태였고, 치료를 받아 보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인 슈렌체척 성도의 전도로 2015년 9월부터 몽골만민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 등록 후 해를 두른 원형무지개를 처음 본 순간,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계시고 나와 항상 함께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지요.

한국 만민중앙교회 생방송 예배에 함께하면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았고, 많은 성도가 치료받고 축복받는 모습에 감동되었습니다. 또 금요일아침예배 2부 때 충만하게 찬양하는 것이 너무도 행복했지요. 저도 다른 성도님들 처럼 귀를 치료받고 싶은 소망이 날로 간절해졌습니다.

2018년, 저는 오른쪽 귀를 치료받고자 만민중앙교회에서 개최하는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절야 기도회 생방

송에 동참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도 다른 성도님 들처럼 하나님 권능의 증인이 되어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였지요.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절야’ 마지막 날, 저희 몽골만민 교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시상식이 있었는데 제가 추천이 돼 생각지 못한 상까지 받았지요. 정말 날아오를 듯 기쁩니다. 상을 받고 나니 ‘이번에는 꼭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지요.

며칠 뒤 이어폰을 꽂고 설교 말씀을 듣는데, 예전에는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려 왼쪽 귀로만 들었는데 왼쪽 귀를 막고 오른쪽 귀에 이어폰을 꽂아도 아주 정확하게 잘 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기하고 믿기지 않아 여러 번 반복해 보았는데 역시나 잘 들렸지요. 하나님은 분명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이 살아 있는 귀한 제단으로 이끌어 주시고, 고막이 터져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제 귀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미디어아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0-6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6507-753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4999-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서산만민성결교회 충남 서산시 무학로 189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동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1층 ☎010-5510-6300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도 제주시 2길 32 해피하우스 701호 ☎064)712-0058, 010-2689-2332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효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겸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7773-035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9972-074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시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삼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718-7458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9972-0743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춘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